

여수단지, 합성수지 수출물류 숨통

광양항, 2008년 300만TEU 처리목표 설정 ... 고정사용료 체계로 전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2007년 광양항 물동량 달성 목표치를 220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 2008년에는 300만TEU로 잡고 자립형 항만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이기 이사장은 5월16일 해양수산부에서 한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직기항체제 확대, 부산항 신항 개장 등 주변 물류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양항은 2006년 22% 늘어난 176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에는 200만TEU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300만TEU를 목표로 물동량 유치에 매진해 자립형 항만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은 선사 불륜인센티브 제도와 항만 마일리지제도,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 결과 6월부터는 머스크 라인의 컨테이너선 3척이 기항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현행 전대사용료 체계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사용료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광양항만 배후 물류부지 59만평을 2008년까지 조기 개발한다.

5월에는 해운·항만 관련기업, 금융기관, 국제회의장 등이 입주해 항만물류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하고 10월에는 조립, 가공, 포장, 라벨링이 가능한 1만50평의 대형물류 집·배송센터를 준공하는 등 지원시설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7>